강릉원주대신문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3년 09월 07일 목요일 100호

2면 대학
소통과 이해의 창, 국제도우미 프로그램
job cafe?, 알고 이용하자

3면 사회
치솟는 물가에 유행하는 짠테크
낯선 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나?

5면 보도
보다 학생을 위한 교내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청춘의 힘찬 발걸음, 국토대장정

6면 인터뷰
총동창회장 '김도영'
총동아리연합회 '아카시아'

7면 특집기사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글로컬 강릉원주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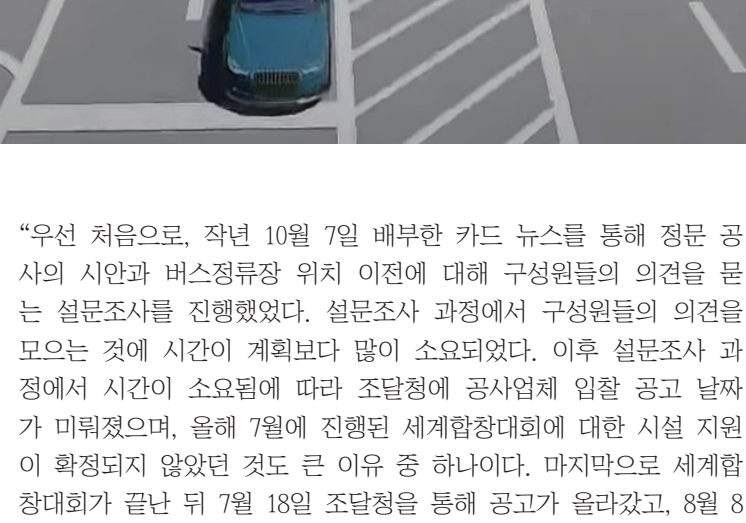
▲ 우리 대학 정문 개선과 지역 상생을 위한 공원 조성 사업 조감도. 사진 제공=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변화하는 학교의 화룡점정, 정문 개선 사업

작년 12월 스포츠 콤플렉스 준공에 이어 학교 곳곳에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개선 사업 중 학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정문 개선 사업은 2022년 10월 7일 GWNU 카드 뉴스를 통해 발표되었다. 사업 추진의 목적은 '1986년 준공되어 37년이 지난 구조물이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개방적이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과 함께 안내되었다. 사업 추진의 목적처럼 정문을 포함한 시설의 노후화와 학교 앞 작은 회전 교차로와 T자형 교차로 이용에 대한 불편 호소는 이어지고 있었다. 강릉시청 홈페이지 시정모니터단 페이지에 2022년 8월 24일 게시된 '강릉원주대학교 교차로 교통 환경 개선(회전 교차로 설치)'이라는 글이 약 550회의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관심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우리 대학 정문 쪽 T자형 교차로의 사고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하며 회전 교차로 설치를 건의하고 있었다. 이 같은 건의 사항들을 해결할 정문 개선 사업은 31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구조물 철거, 주 진입로 조경식재, 회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LED 입체 전광판 설치 등 환경개선 정비를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문 개선 사업과 더불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공원 조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공사, 늦어진 이유는?

2023년 8월 21일 우리 대학 시설과에서 강릉 캠퍼스 정문 개선 공사 보행·차량 통제 안내문을 구성원들에게 배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공사 기간은 8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약 4개월간 사회과학대학 뒤편 이면 도로를 통제하여 공사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다. 정문 철거와 버스정류장의 이전을 위한 도로 통제이다. 2022년 10월 7일 배부된 카드 뉴스에 명시되었던 기간은 설계용역 추진으로 22년 9월 19일부터 23년 1월 6일까지, 공사 예정 기간으로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였으나, 8월 말이 되어서야 공사가 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명으로 시설과는 "우선 처음으로, 작년 10월 7일 배부한 카드 뉴스를 통해 정문 공사의 시안과 버스정류장 위치 이전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에 시간이 계획보다 많이 소요되었다. 이후 설문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달청에 공사업체 입찰 공고 날짜가 미뤄졌으며, 올해 7월에 진행된 세계합창대회에 대한 시설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합창대회가 끝난 뒤 7월 18일 조달청을 통해 공고가 올라갔고, 8월 8일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강릉시청 도로과의 적격 심사 이후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정문 개선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밝혔다. 정문 개선 사업 담당자인 박대근 주무관은 "올해 안으로 준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차량 도로와 보행 도로를 통제하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구성원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과학대 학생들이 공사 소음과 먼지로 불편함을 느낄 것이 우려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현재 진행중인 정문 개선 사업 공사와 회전 교차로 공사 현장이다. 사진 제공= 김건

정문 철거와 버스정류장 이전과 더불어 학교 정문 앞 회전 교차로 확장도 동시에 진행된다. 회전 교차로 공사에 대해서 강릉시청 도로과 전의 주무관은 "기존의 소형 회전 교차로를 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현재 회전 교차로의 내접원이 작아서 벌어지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내접원을 키움과 동시에 우회전 전용 차로의 설치 등이 공사를 통해 이뤄질 것입니다. 회전 교차로 통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9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기상 악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라고 공사 내용과 소요될 기간에 대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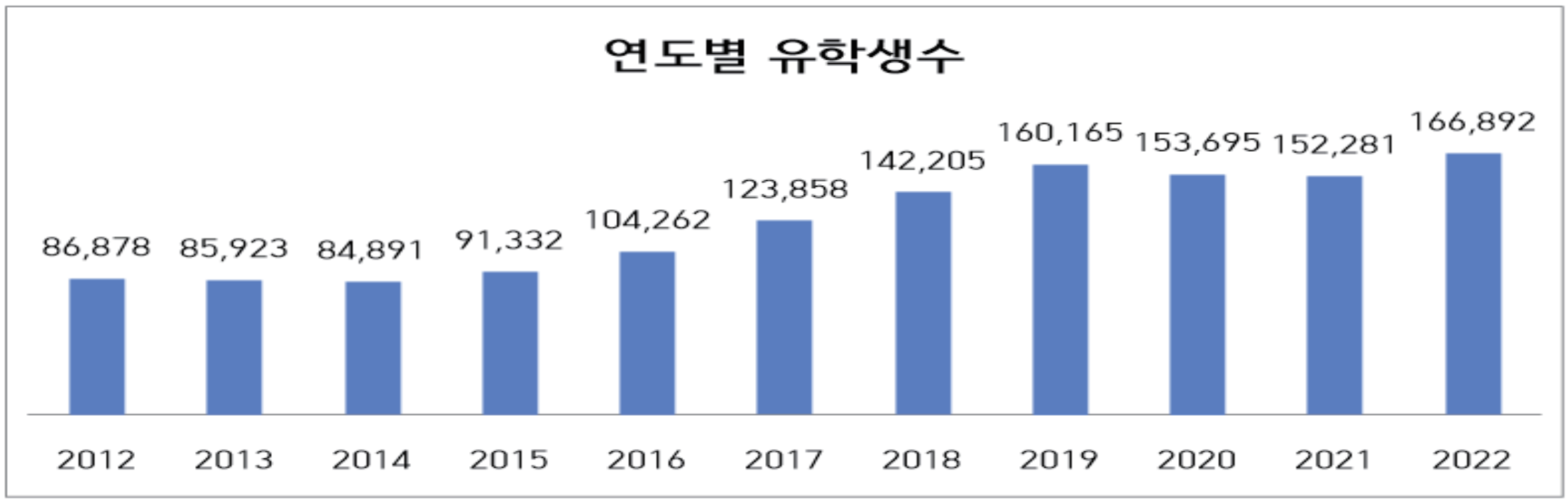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필요성과 학생들의 관심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학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문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학교 측은 말했다. 버스정류장 이전을 통해 통학 학생들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교직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회전 교차로도 교통 혼잡의 불편이 개선될 것을 생각하면 7번 국도를 통해 교동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은 실제로 편의를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문 개선 사업 이후 공원 조성 사업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대학을 통해 구성원들과 주민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기존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방학 기간 중 소홀해지는 소통의 문제와 더불어 개강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루어지는 안내 때문이다. 예시로 학생 식당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문화관 식당을 이용해야 하는 것도 개강 2일 전 카드 뉴스를 통해 전달되어 방학 중 식당 이용에 당혹스러움을 토로한 학생들이 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개선 사업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그에 대한 의사소통이 활발히 발생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또한 학교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홈페이지 공지 사항이나 카드 뉴스를 수시로 확인한다면 보다 나은 대학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건 기자

소통과 이해의 창, 국제도우미 프로그램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유학생 수의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 자료 제공=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며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발표한 2022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전년도 보다 약 1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강릉원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0년에는 191명, 2021년에 204명, 2022년에는 278명으로 확연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들의 국적은 베트남 208명, 중국 24명, 인도네시아 5명, 일본 3명, 러시아 2명, 미국 2명, 기타 34명이다. (2022년 4월 1일 기준) 그러나 공부를 위해 타국으로 발걸음을 옮긴 유학생은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라는 장애물을 마주하며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을 위해 국제도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국제도우미란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학습 및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교 유학 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국인 재학생의 국제화 감각을 함양하기 위하여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1:1로 연결해 서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국제도우미 활동에는 언어 교환 및 문화 교류,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학습 및 학업 지원, 한국 및 학교생활 소개와 적응 지원, 교내외 활동 지원 등이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상호 언어 학습 및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한국인 학생 중 일본학과 19학번 김태현 학생은 "외국인들과 함께 만나 대화하고 상대방의 나라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대학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어 친해지기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해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소감을 전달했다.

또한 국제도우미 활동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 유학생인 국어국문학과 22학번 샤피라(shafira) 학생은 활동의 장점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해 알 수 있고 한국 친구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점이 좋았다."라며 활동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도우미 활동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도우미 활동 지원금의 선지급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시해 주길 바라는 등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외협력실 국제교류팀에서는 이러한 참가자들의 의견에 "학생의 요구 사항을 듣고 개선하고자 한다. 활동 지원금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지급해야 하기에 선지급하기가 어려우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답변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활동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을 수용해 개선한다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제도우미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국제도우미 활동에 참여해 다른 국가와 문화, 언어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도우미 지원 방법과 혜택

국제도우미 지원 방법은 첨부된 양식(지원서, 자기소개서)을 작성 후 국제교류팀 이메일로 제출하며,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 보유자는 원본 성적표를 제출한다. 이후 지원서, 자기소개서, 소속 단과대학 및 학과 등을 검토한 뒤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활동 평가 기준을 충족한 국제도우미 학생에게는 활동 지원금 300,000원이 지급되며, 국제도우미 활동 증서 및 사회봉사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 외국인 학생과의 언어·문화 교류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국제도우미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021년 국제도우미 일본학과 김태현 학생과 유학생 참가자. 사진 제공= 김태현

김도연 기자

Job Cafe?, 알고 이용하자!



▲ '취업 스트레스 해소, 내일(Job)을 더 새롭게 with 무알콜 하이볼 만들기' 프로그램. 사진제공= job카페

Job Cafe란?

학교를 거닐다 보면, Job Cafe라는 큰 건물이 보이곤 한다. 궁금하긴 하지만 막상 들어가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Job Cafe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를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취업 정보를 찾아가도록 도와준다. 전 학기에 진행되었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Job Cafe에 방문하는 '어서 와 Job Cafe는 처음이지', 직무소개와 연계한 '원 데이 클래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Job Cafe 간식 이벤트' 등이 있었다. 그 외에도 기업 채용 설명회, 해외 취업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어국문학과 23학번 김소희 학생은 "아직 1학년이라 여러 진로를 알아가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Job Cafe에서는 학생들이 만족스러울 만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Job Cafe를 이용해보자!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Job Cafe에서 취업 도서 대출, 스터디 룸 이용, 진로 및 취업 상담, 모의 면접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취업 도서 대출은 취업을 위한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3주간 대출이 가능하다. 스터디 룸은 예약을 통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담에서는 상담사 선생님과 1:1로 자신의 강점 찾기, 진로 설정부터 자기소개서, 면접 상담까지 진로 취업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Job Cafe를 운영하는 학생성공지원과에선 "학생을 위한 공간인 Job Cafe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진로나 취업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라며 취업과 진로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언제든지 찾아오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슈퍼 커리어 주간이란?

Job Cafe에서는 '슈퍼 커리어 주간'을 운영한다. 이 주간에는 취업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1학기에는 진로, 취업, 초청특강과 진로 워크숍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자면, '취업 스트레스 관리 전략', '직무 특강, 서비스 기획 직무 이해 및 취업 준비 전략 참여자 모집', '기업 실무자 직무 멘토링' 등이 있다. 시범 운행했던 '기업 실무자 직무 멘토링'은 많은 요청을 받아, 하계 방학 프로그램으로 구제화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2학기에도 커리어 주간이 9월 18일서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 자신의 진로 혹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이 취업과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상황에 좌절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Job Cafe는 그런 방황에 무게를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학기를 맞이해 Job Cafe에 방문해 보자.

신지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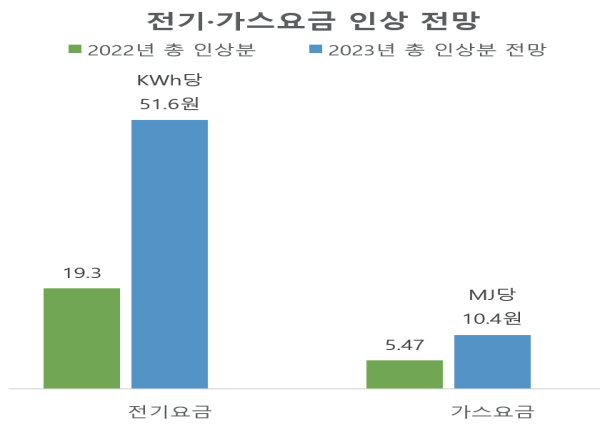
치솟는 물가에 유행하는 짠테크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사상 최고 기온을 달성하며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8월의 장마철 폭우와 한여름 본격적인 열대야까지 더한 날씨가 이어졌다. 높은 습도와 체감 온도로 인한 폭염 특보가 이어지면서 전력수요도 함께 높아져 여름철 냉방비 걱정도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몇 차례에 걸쳐 급격하게 인상된 공과금은 우리 대학 인근 자취생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전기 요금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월부터 9.5% 추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총 2.7배 인상되었다. 이에 국제통상학과 21학번 정난희 학생은 "외출을 하게 되거나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전기제품 코드는 최대한 다 뽑고 지내려고 한다. 차라리 전력을 최소화하며 지내는 게 전기세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에 실행하게 되었다."라며 본인의 생활습관을 전했다.

구분	조정일	조정금액	비고
기존	2021년 기준	67,870원	전년 대비 난방요금 37.8% 인상
1차	2022년 04월 01일	69,700원	
2차	2022년 07월 01일	77,510원	
3차	2022년 10월 01일	93,520원	

▲ 3차례에 걸쳐 난방요금이 인상되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자료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

한편 2022년 10월부터 전년 대비 37.8% 인상된 가스 요금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가스비 폭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그렇기에 올해 2분기 전년 대비 1.9배 추가 인상된 가스 요금은 다시금 돌아오는 2학기 겨울철 생활에 더욱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다.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2023년 1월에 작성된 글을 살펴보면 "4~5만 원대이던 가스 요금이 외출 모드로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9만 원대로 나와서 충격적이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2만 원대로 나오던 가스 요금이 최근에는 6만 원대가 넘는다.", "요즘 추운 날씨 탓에 보일러를 꽤 틀었더니 13만 원 정도 나왔다."라며 급격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당혹스러움에 대해 각자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 전년 대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자료 제공=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추가로 최근 공과금과 물가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주거 부담이 커지면서, 더욱 효율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자취 생활을 선택하기보다는 기숙사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의 입장도 들어보았다. 국어국문학과 21학번 박지영 학생은 기숙사 생활을 이어나가는 이유에 대해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기숙사 생활과 달리 자취 생활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공과금과 생활비, 월세까지 생각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기엔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 현재 공과금의 인상도 자취 여부 고려 사항에 영향을 미쳤다. 요즘 날씨에 에어컨은 필수요건이고, 겨울에는 보일러와 온수도 사용해야 하니 아직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 자취보다는 상대적으로 식비 및 생활비 걱정이 덜한 기숙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학생 입장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한편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MZ세대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MZ세대 500여 명 중 절반은 최대 관심사로 생계비 증가를 꼽았으며, 가장 우려하고 있는 현안 1위는 생계비(35%), 실업(22%) 순이었다. 이처럼 잇따라 발표되는 공과금 인상은 물론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활비에 압박을 느끼는 2030 세대는 물가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소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짠테크'를 들 수 있다. 유행하는 강도 높은 절약 활동, 즉 '짠테크'는 '소득 정체'와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이유로 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인 상황과 흐름을 반영한 용어이다. 국어국문학과 21학번 김도연 학생은 "배달비를 줄이기 위해 1~2주에 한 번씩 장을 봐온 후 요리를 직접 해서 먹는 편이다. 밖에서 사서 먹는 것보다 절약이 되고 좋다."라고 본인의 소비 습관을 전했으며, 배달비와 카페 이용 등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 이외에도 중어중문학과 21학번 류혜원 학생은 "택시비로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 너무 멀지 않은 거리는 최대한 걸어서 다니려고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요즘엔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 쉽지는 않다."라고 전했다. 이렇듯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 짠테크 종류인 '소비 대상 변경'과 '불명확한 소비처 제거' 등의 양상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요즘 청년층을 중심으로 익명의 채팅방에서 서로의 지출을 공유하고 유머러스하게 절약을 유도하는 이른바 '거지방'이 유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여타 커뮤니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지방'은 부담 없이 개인적인 지출을 말하고 서로의 과소비를 조언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는 불황과 고물가 상황을 해학적인 태도로 대처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無 지출 챌린지 브이로그' 등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팁이나 관련 영상 조회 수가 증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젊은 세대들이 고물가 상황을 직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일상 속 '짠테크' 생활을 자신들만의 개성적인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에 밀려 짠테크를 행하게 되는 학생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혜택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이다. 현재 사회초년생이 된 화학생명공학과 17학번 김성종 졸업생은 "작년까지 학생 신분으로 자급자족하며 자취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였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평일에 일을 하며 시험 기간을 지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꿈 동행 장학금을 통해 도움을 얻으며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라며 자신이 생활면에서 도움을 얻은 경험을 공유하였다. 우리 대학 꿈 동행 장학금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학부생의 소득분위와 성적을 토대로 선발하여 매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이 더욱 많아지면서 치솟는 물가로 인한 '짠테크' 소비 생활에 지쳐 있는 우리 학생들과 2030 세대 청년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사회가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김혜미 기자

낯선 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나?

보험이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 미리 계약해, 만일 이후에 해를 당하게 되면 보장받는 계약을 말한다. 대학생들에게는 아직 낯설 수 있다. 우리 대학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보험, '구내 치료비'와 강릉시의 '자전거 보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대학에서 보장하는 구내 치료비는 학교 수업과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혹은 외국인 유학생이면 누구나 보장된다. 보상 기간으로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여야 하며, 보상액은 최고 300만 원 이내 실제 치료비이다. 여기서 청구 제외 항목으로는 고의, 천재지변, 교통사고, 폭행 사고, 운동선수 경기 사고 등이 있다. 질병에 관한 청구도 제외 대상이다. 구내 치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선, 청구자는 치료 이후 보건실에 보험 청구서와 준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준비 서류로는 의료 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단서 혹은 소견서, 약국 영수증, 재학 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를 보건실에 제출하고 나면, 보험사로 사고 및 보상 접수된다. 이후 보험사의 보상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구내 치료비는 홍보나 이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을까? 먼저 구내 치료비 청구 건수로는 2022년 기준 총 26건 정도,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는 19건이 청구되었다. 이에 보건실 측에선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에 따라 매해 다르나 우리 대학은 가입한 금액의 80% 정도로 학생들이 치료비를 청구하여 적정하다", "가입 금액의 100%가 넘으면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있어, 다음 해 입찰을 꺼리거나 보험 가입액을 상향 조정한다. 타 대학에서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구내 치료비의 자기 부담금 100,000원을 부과하거나 그 금액 이하의 치료비는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대학도 많기에 적정하다."라고 밝혔다. 매년 학기 초 공문 시행, 학과를 통한 안내, 단과대학 행사 개최 시 학생회 임원진을 통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혹여나 몰랐던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구내 치료비 보장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우리 대학의 '구내 치료비' 외에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강릉시 '자전거 보험'이 있다. 주거지가 강릉시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리고 강릉시가 추진하는 녹색 도시 정책에 따른 정책이다. 이 보험은 1년 단위로 자동으로 갱신되어 기한은 걱정 없다. 보장은 전치 4주 이상부터 보장된다. 고의적 사고 혹은 경기를 위한 연습 도중 사고를 포함한 전쟁이나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1899-7751(보험사 콜센터)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 결정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에 대한 문의는 보험사 또는 시청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 대학의 구내 치료비와 강릉시의 자전거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비해 어떤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혹여나 모르는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잘 활용하길 바란다.

신지우 기자



사 설

쉽게 변한다는 것에 대한 긍정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올해의 여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찌는 듯한 더위와 더불어 더위를 식혀야 할 비는 폭우로 변해 수많은 피해를 낳았다. 날씨뿐만 아니라 사회도 병들어 일어나서는 안 될 칼부림들에 피 흘리고, 억울한 죽음들에 의해 얼룩졌다. 이처럼 부정적인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기력하게 '부정'에 노출되어 있다. 그 영향은 없을까? '신경 가소성(Neural plasticity)'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신경 가소성'은 의학 용어로 단어의 뜻은 뇌의 신경계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자극, 환경 등으로 뇌의 구조나 기능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자극이나 경험, 트라우마 등을 겪으면 뇌의 기능이나 구조가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어릴 때 들어봤을 법한 말 중에 하나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자라라'라는 말이 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서 좋은 아이로 자라라고 하는 말이다. 긍정적인 사고나 경험을 겪으면 뇌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신경 가소성'이라는 어려운 의학용어가 없이도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사고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부정과 긍정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가소성'에 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으로 덮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글의 초반에 말했듯이 현재 우리는 최근 부정적인 것들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그에 더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어렵지 않게 부정에 휩싸인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삶의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나의 선택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기에 긍정적인 것들 또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 사소하게는 친구들과의 술자리, 남는 시간에 좋아하는 카페에 가기와 같은 것들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다. 크게는 훌쩍 '내일로 여행'을 떠난다든가, 열심히 모아놓은 돈 혹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국토대장정 등과 같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들이든 큰 것들이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취업, 돈, 인간관계' 등과 같은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불변하는 것들이고 우리는 가변적이기에 우리는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고 제자리에 있는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에 그것들(부정적인 것들 또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또는 이용 가능한 것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마냥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또는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바라볼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완전히 문제를 극복하거나 문제 자체를 없애기는 가능보다는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정신과 의사인 이준용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어떤 국을 요리할 때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다면 물을 더 붓거나 다른 재료를 더 넣으면 매운맛이 중화됩니다. 고춧가루가 어릴 때 겪은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이나 자극들로 그것들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것들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시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서 좀 더 나아가면 트라우마나 커다란 부정적 경험이 아니라면 사소하고 작은 행복들로도 각종 부정적인 것들을 중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뭉친다면 커다란 트라우마도 어느새 작아져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글의 초입에 이야기한 부정적인 사회의 단면을 보고 부정의 꼬리를 물기보다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니, 여러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일들과 내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에 집중하여 밝은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

한 컷 속으로



작지만 소중해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 방학 기간, 우리 학교 인문대 앞 잔디밭에 새로운 고양이 쉼터가 생겼다. '림이 하우스'라고 적혀있는 팻말과 함께 "길고양이 TNR(중성화 수술)을 꾸준히 시행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통해 영역 동물인 고양이가 다른 곳에 피해를 주는 일이 줄어듭니다."라는 메시지도 부착된 모습이다.

인문대 소속 학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뜨거워진 아스팔트와 거센 장맛비에 지쳤을 고양이에게 좋은 쉼터가 생긴 것이다. 길고양이를 위한 '림이 하우스'에서 나아가 소외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가 되어가면 좋을 것 같다.

김혜미 기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강릉원주대학교 재학생의 말들을 신문으로 대신 전해드립니다! 평소 전하고 싶었던 말이나 못했던 말들을 끄적끄적!

● 9월 새 학기가 다가오니 지난 두 달의 방학 기간 동안 나름의 계획을 세워 열심히 지낸 것 같기도, 자투리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해 볼 걸 하는 후회도 남곤 합니다. 다가온 2학기에는 더욱 열심히 생활해 보고자 하는 다짐도 다시 세워보며, 방학 내내 땀 흘리며 함께 고생한 국어국문학과 보정이에게 애정을 담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 [국어국문학과 21학번 김혜미]

● 수현아~ 너와 2학기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어 너무 기뻐! 학번이 높은 나와… 선뜻 응한 너는 정말 천사가 따로 없구나…이번 학기 전공 수업도, 야간작업도 같이 열심히 〉〈 아자잣! - [국어국문학과 20학번 황보민경]

● 나를 떠나가 버린 영기야. 네가 무척 그립구나! 빨리 돌아오길 바라. 너랑 재밌게 놀고 싶어. 그리고 혜미 언니 민경 언니~ 내가 많이 좋아하고 고마워요^-^ - [국어국문학과 21학번 김도연]

● 이쁜 가을 옷 입을 생각에 벌써 신나네용 - [국어국문학과 23학번 익명]

● 나와 함께 들어온 동기들은 졸업했지만 난 전과하고 색다른 공부를 하게 된 것이 독이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잘해보자!! - [전자공학과 18학번 김규범]

●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들으면 졸업을 하는데 열심히 했다!! 휴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찍 졸업 했겠지만 너무 알찬 시간이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 [일본학과 19학번 김태현]

● 방학 기간 동안 소셜벤처 교육을 참여를 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 [철학과 21학번 김동주]

● 태현아 나 서운해 그만 갈궈줘 항상 응원해 졸업하고도 보자.- [17난쟁이 부장님]

※12월호에 실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에 QR코드를 스캔한 후
응원, 칭찬, 축하 등을
작성해주세요 !

< QR코드>

멍 석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일본학과 김태현

포근하고 따사롭던 봄이 가면 뜨거운 여름이 온다. 여름에는 여름방학과 후기 졸업이 찾아온다. 계곡에서 친구들과 놀기, 스펙 쌓기 등 많은 계획을 세우며 우리의 열정도 뜨겁게 불타오른다.

이번 여름 해수욕장을 가기 위해 다이어트 계획을 한다.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한다. 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수계획'일 뿐이다. 하지만 '미지수계획'은 여름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이것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놀면서 더 많은 추억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추억을 떠올리면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잠시나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니 이번 여름에 다이어트를 무조건 성공할 필요는 없다.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수박도 마음껏 먹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도 행복한 여름이었을 거니까. '미지수계획'을 다음 여름에게 주고 이번 여름을 잘 보냈다고 다독여주며 가을을 맞이해보는 것은 어떠한가?

원하던 다이어트를 실패해도 아름다운 여름이었던 것처럼 졸업 후 취업이 잘 안되더라도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운다. 토마스 에디슨이 말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 속에서도 해답은 있다. 실패를 맛보지 못한 성공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모르고 직진만 하다가 어느 날 낭떠러지를 만나게 된다. 이때 대비책을 못 세웠다면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지만 실패를 맛본 자는 언젠가는 낭떠러지가 나온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좌회전할지 우회전할지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된다. 실패를 만났어도 좌절하지 말고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에게 준 기회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우리의 2학기가 시작한다. 지난 여름방학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휴식 기간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알찬 시간이었길 바란다. 또한, 2학기가 지나고 떠올려보았을 때 열정 가득했던 여름에 생각한 2학기의 내가 아니더라도 괜찮다. 우리는 예쁜 겨울꽃을 피울 테니까.

보다 학생을 위한 교내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지난 7월 13일부터 우리 대학 강릉 캠퍼스 도서관은 '휴일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제까지 휴일이나 주말에는 도서 대출이 불가해 불편을 겪었던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만이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본지에서 도서관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톺아보았다.

휴학생 이용 권한 운영 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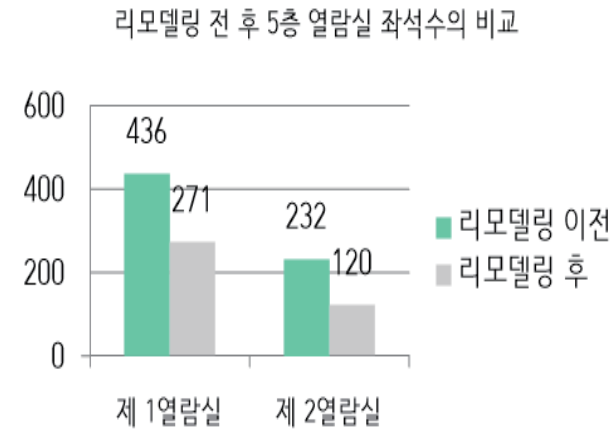
우리 학교 도서관은 휴학생에게 도서관 이용 권한을 전면 정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도서관 시설 이용 및 대출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료(e-book 및 논문 사이트) 열람 또한 불가하다. 휴학 중인 학생의 도서관 계정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도서관 측에 문의하여 정지를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회원 신청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된다. 또한 외부인 회원에게 부과되는 회원금(발전기금) 납부 의무 역시 휴학생 신분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절차를 위해서는 직접 학교 도서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관 회원제 운영지침(2022)에 기재된 사항에 따르면 휴학생이 도서관 이용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 휴학생도 도서관 이용이 자유로운 타학교(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 비해 비효율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휴학생의 신원에 대한 신용과 자료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와 같은 규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인터넷 자료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전북대학교와 같이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도서관 열람실 전경이다.
사진제공= 강릉원주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리모델링 이후 열람실 자리 부족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던 도서관 리모델링 이후로 5층 열람실은 좌석 간의 공간을 넓히고, 넓은 책상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설치된 책걸상의 수가 줄어 수용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도서관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1열람실은 436석에서 271석으로, 제2열람실은 232석에서 120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좌석이 부족해지며 자리를 맡아두고 수업이나 시험을 보러 다녀오는 학생들도 늘었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던 이지희(세라믹신소재공학과 20학번)학생은 "시험 기간에는 특히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장시간 자리를 비워두는 학생들이 있어 이용이 어려웠다"라며 당시의 불편을 토로했다. 반대의 의견도 있다. "도서관 리모델링 이후 시설이 너무 좋아 좌석 부족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조은희(식품영양학과 18)학생은 만족스러운 소감을 밝혔다. 도서관 측에서는 좌석 이용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후 제1열람실에 4석, 제2열람실에 24석의 좌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1:1 문의 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다. 문의사항을 게시하면 3~4일 내로 친절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로 집계한 건의사항이 연평균 11건에 그친다. 학생을 위한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학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황보민경 기자

청춘의 힘찬 발걸음, 국토대장정

방학 중 대학생이기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원하여 해외 봉사를 떠나거나, 서핑이나 수상스키를 배운다든가 청춘이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을 활동 말이다. 그런 활동 중 흔히 대학 생활의 꽃으로도 말하는 국토대장정이 올해 우리 대학 내에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국토대장정 마지막 코스인 해운대에서 종주를 마친 4기 국토대장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사진제공=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올해 진행된 국토대장정은 포항(호미곶)을 시작으로 부산(해운대)까지의 코스로 2023년 6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었다. 일주일간 먼 거리를 걷는 코스이기에 참가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이를 위해 사전답사를 두 번에 걸쳐 진행하였고 답사를 통해 이동 중 위험 요소에 대해 미리 파악해 코스를 변경하거나 참가자들이 자게 될 숙소를 재확인했다. 이처럼 안전하게 진행된 제4기 국토대장정은 강릉 캠퍼스 34명과 원주 캠퍼스 16명 총 50명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정 도중 취업에 성공하여 이탈한 1명, 개인 가정사로 인한 1명 외 3명까지 총 5명을 제외한 45명이 완주에 성공했다.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21학번 국어국문학과 김한희 학생은 "오랜 시간 동안 걷는 것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틴 친구들과 조원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고 마지막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는 그 힘들었던 시간이 보람과 뿌듯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국토대장정이었다. 이를 기획한 이정헌 학생 인권복지 위원장은 "걷는데 덜 힘들지만, 국토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코스를 기획하고 싶었습니다. 이 행사가 재학생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좋은 추억이 되었다면 충분히 성공한 행사 같습니다. 부족했지만 믿고 따라와 주어서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2018년 1기부터 시작되어 2023년 4기까지의 우리 대학 국토대장정 프로젝트는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되는 동해안 해파랑길 50코스에서 마지막 구간인 부산 1코스까지의 종주를 마쳤다. 궂은 날씨에도 진행되었던 국토대장정은 1기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2 50명의 인원이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날씨로 인한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1기 국토대장정에서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다. 1기 당시 비가 많이 왔던 날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학교로 내려오는 코스 중, 속초 경계 부근에 도착했을 당시 단원들의 신발이 다 젖어 다음날 계속 걷기에는 발에 물집이 잡힐 수 있어 50켤레를 세탁할 곳을 찾았으나 난관에 봉착했다. 그때 한 세탁방 사장님이 본인도 국토대장정을 대학 시절에 했던 경험이 있다고,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며 동네 세탁방 사장님들에게 전화를 돌려 다음날까지 50켤레 를 세탁해 주었다고 한다. 세탁물과 더불어 각각의 신발마다 '고생하십시오,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적어 당시 1기 단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고 한다.

이처럼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도 담고 있는 국토대장정을 1기부터 4기까지 지원하고 관리한 학생복지과 최길순 담당자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걸어갈지에 대한 걱정들이 많았는데, 서로 이끌어주고 전우애가 생기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늘어 뿌듯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진행 중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감은 늘 느껴오던 것이었는데,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2018년 고성부터 2023년 부산까지의 긴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은 국토대장정 단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가 지속되길 바란다.

김건 기자

강릉원주대학교 해람 스포츠콤플렉스 프로그램 안내

구분	강좌명
수영	• 100세 건강 자유수영 • 물과 함께 단체수영 • 1:1 강좌, 1:2 강좌
아쿠아로빅	• 평생 활력 아쿠아로빅
피트니스	• 자유 피트니스 • AI 피트니스 • 1:1 강좌, 1:2 강좌

◆ **(운영시간)** 평일 06:00-21:00 토요일 06:00-17:00 ※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 **(회원모집)** 매월 중순 온라인시스템(Draxfit) 또는 방문 신청 접수 (익월 프로그램 신청)

◆ **(모집대상)** 본교 구성원 및 일반인(대학생,성인)

※ 이용료 및 기타 세부 내용은 해람 스포츠콤플렉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람 스포츠콤플렉스 (https://sportscomplex.gwnu.ac.kr)

강릉원주대 동문을 책임지는 총동창회 회장을 만나다


▲ 총동창회 회장 '김도영'

우리 대학을 졸업하면 동문이 됩니다. 동문의 만남을 이어가는 곳인 동창회는 학교의 발전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창회를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있는 총동창회 '김도영'회장을 소개합니다.

1. 총동창회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 총동창회 회장 '김도영'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02학번으로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총동창회 회장뿐만 아니라 보담 대표, 케이 프라이드 대표, 백두대간 영농조합법인 대표, 강릉명륜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2. 현재 총동창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총동창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동창회가 새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립하는 단계입니다. 또한, 18대 총동창회는 배의 닻줄을 풀고 출항한다는 의미를 지닌 '해람'이라는 단어로 새로이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진행한 회의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할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동문들이 총동창회를 나중에 어떻게 이어가길 바라시나요?
- 총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는 공통 사로 만들어진 친목 단체이기도 하지만 구성원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총동창회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총동창회와 소통하면서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4.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신데 현재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저는 30살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연수로 따지면 27년이나 되었습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후배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창업은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창업에 대해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는 비판적이고 회의적으로 자신의 창업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업에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창업이 진행 중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5. 현재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학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졸업할 때가 되면 대학원에 가는 후배도 있을 것이고 사회로 나가는 후배도 있을 겁니다. 모든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공부하지 않는 순간 자신이 향상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동아리의 꽃 총동아리연합회 '아카시아'


▲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우태'

대학의 꽃이라고 하면 동아리, 대학 축제 등 대학 생활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동아리는 대학에 들어가면 한 번쯤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는 학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리를 관리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총동아리연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 '아카시아' 회장 김우태 학우를 만나보아요!

1. 안녕하세요! 총동아리연합회 아카시아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 안녕하십니까. 제38대 총동아리연합회 아카시아입니다. 동아리에 속하지 않은 일반 학우분들에게는 총학생회가 있다면 동아리에 속한 학우에게는 총동아리연합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총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를 위해서 행사 진행, 동아리방 보수, 타 대학과의 연계 등을 하면서 동아리를 위해 노력하는 동아리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이번 38대 총동아리연합회를 아카시아로 선정해 주셨는데요. 수많은 꽃 중 아카시아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 첫 시작은 아카시아가 아니었지만 아카시아는 색이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의 많은 색처럼 우리도 모든 동아리에 어울리고 아울릴 수 있는 총동아리연합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름을 아카시아라고 지었습니다.

3. 동아리는 분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구성에 대해 잘 모르는 학우들을 위해 각 분과 소개 부탁드려요!
- 6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분과입니다. 문화분과는 무대에 올라가는 공연팀 등이 속해있는 분과를 문화분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댄스, 힙합, 노래뿐만 아니라 연극도 문화분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술분과입니다.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배우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분과를 학술분과라고 합니다. 세 번째, 체육분과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는 분과를 체육분과라고 합니다. 네 번째, 봉사분과입니다. 봉사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학우들이 모여 봉사하는 분과를 봉사분과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취미교양분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미를 진행하는 분과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찍기, 서브컬쳐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종교분과입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분과를 종교분과라고 합니다.

4. 1학기에 진행된 동아리 박람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동아리 박람회의 좋았던 점& 아쉬운 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처음으로 진행한 행사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동아리에서 진행한 가장 큰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동아리들이 시끌벅적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아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동아리가 참여해서 함께하는 동아리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이번 2학기에 진행될 행사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 동아리 특색을 보여주는 영상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꽃이자 하이라이트인 동아리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릉원주대&강원대의 동아리 교류전 등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학우분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6. 2학기에 진행될 행사를 학우분들이 더 재미있게 즐기기 위한 꿀팁!
- 동아리제가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노래로 꾸며진 무대를 학우분들도 함께 즐겨주시면 더 재미있는 동아리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무대에 대한 정보들은 총동아리연합회 인스타그램(@gwnu_acacia)에 올라갈 예정이므로 확인하신 후 즐겨주시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이번 2학기가 지나면 임기가 끝나시는데 38대 총동아리연합회 '아카시아'는 학우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 시간이 빠르네요. 벌써 임기가 끝나가네요. 물론 "아카시아 일 잘한다. 이번 총동아리연합회 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동아리연합회 에너지 넘치고 우리가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친구들이었다.라고 기억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기자

〈각 분과의 분과장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체육분과〉

버터플라이

한 학기 단 돈 만오천원으로 탁구장 무료 사용 및 훈련까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봉사분과〉

로타랙트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고 실천에 나서는 젊은 리더들이 이끄는 봉사 동아리입니다.



〈종교분과〉

IVF

안녕하세요 기독교 동아리 IVF입니다!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함께 놀고, 배우고, 예배해요!



〈학술분과〉

들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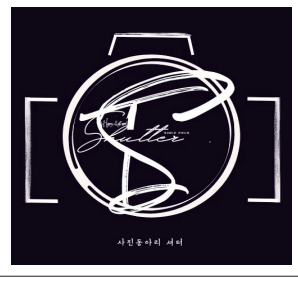
아름다운 시를 쓰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문학 동아리입니다.



〈문화분과〉

G#

기타 교육 및 공연 등 여러 음악활동으로 친목을 다지는 기타 동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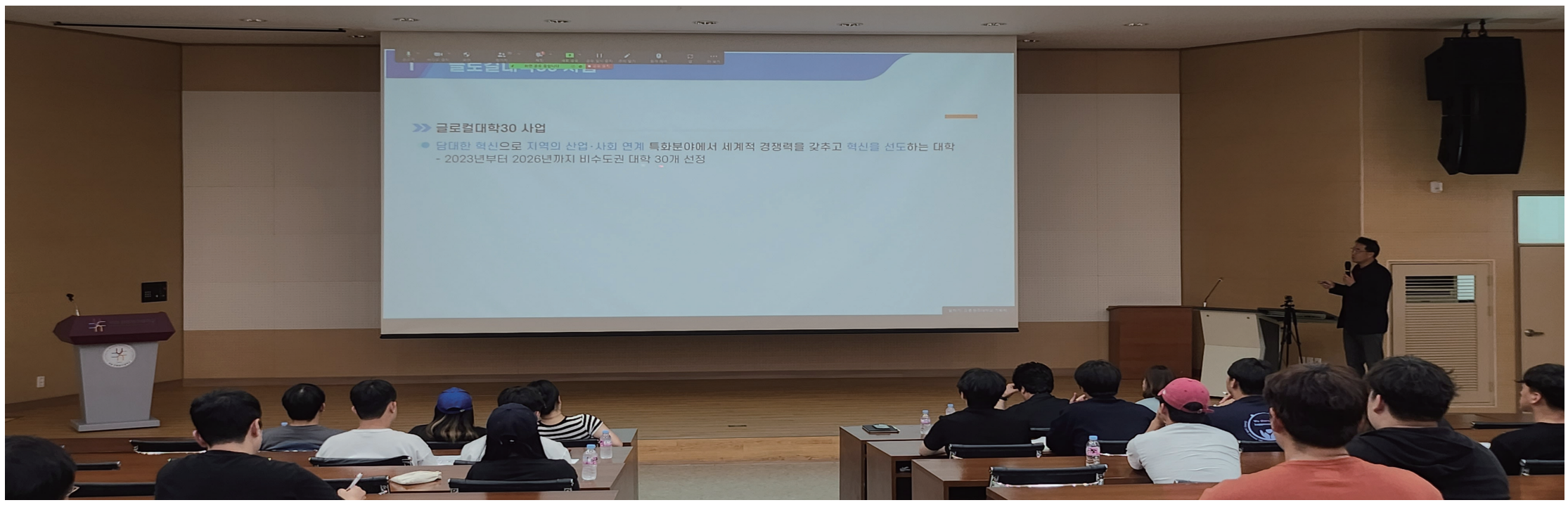


〈교양/취미분과〉

셔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사진동아리 셔터에서 내가 촬영한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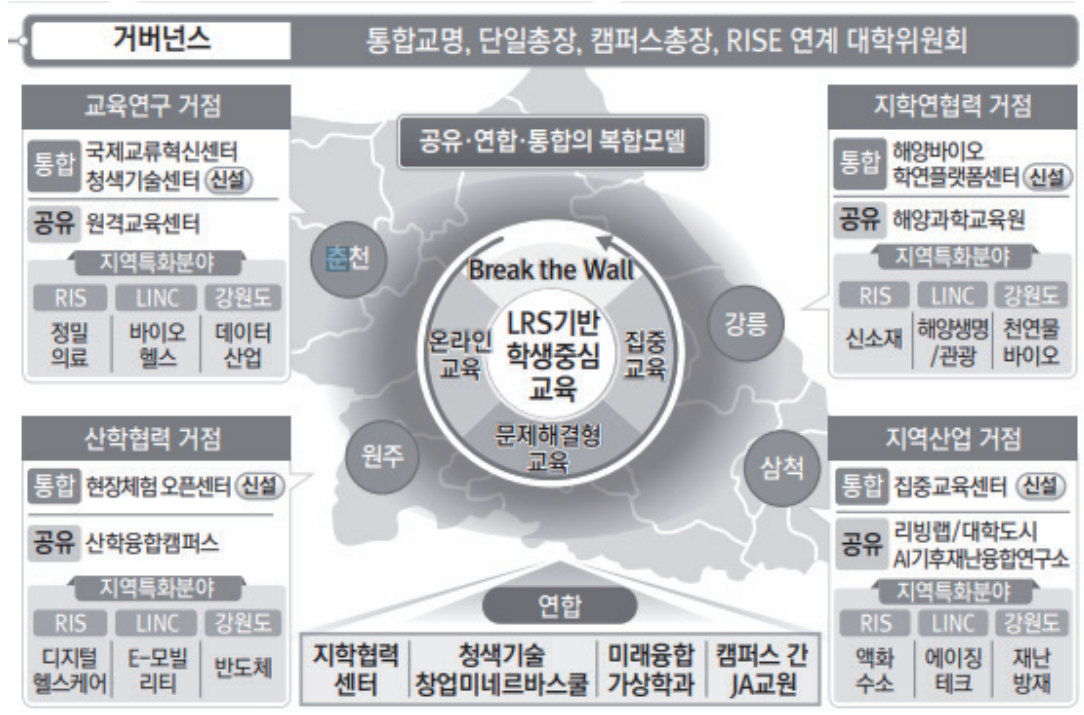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글로컬 강릉원주대학교”



▲ 8월 1일 진행된 글로컬 대학 학생 설명회. 사진제공= 기획평가과

글로컬대학이란

2023년 4월 18일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30」 추진 확정안을 내놓았다.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에 따르면 학과 간, 대학-지역-산업간, 국내·외간의 벽을 허물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지역이 동반 성장, 최종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혁신 전략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지역별로 혁신에 대한 역량이 있는 대학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투자가 지원되며, 혁신에 걸림돌이 될 규제들을 혁파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컬대학’의 선례로 독일 미텔슈탄트대에서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춰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산업 현장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활용 중이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역시 대학 간, 지역 연구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 캠퍼스 별 기능을 특화하는 방안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진행될 ‘글로컬대학’ 또한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밝혀졌다.



▲ 우리 대학이 제출한 혁신 기획서의 중점 사업 보고자료. 사진제공= 교육부 홈페이지

108개의 대학 중 예비지정에 선정

2023년 6월 20일,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발표에서 우리대학과 강원대학교의 ‘1도 1대학 모델’이 기타 14개 대학과 함께 선정되었다. 신청 가능한 비수도권 일반재정 지원 대학 중 65%가 넘는 108개 대학이 94개의 혁신 기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엄정한 합숙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된 결과이다. 우리 대학은 통합 추진 모델로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캠퍼스들이 하나의 거버넌스 하에 각자의 독자성과 특성화를 도모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우리 대학을 포함한 각 예비지정 대학들은 9월까지 지자체,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구체성, 진정성, 지속가능성 및 실행력이 담긴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월 말, 10개 내외의 대학을 최종 지정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

예비지정 결과 발표 이후 우리 대학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교수 대상 단과대학 설명회를 8회 진행하였고, 직원 설명회를 2회, 조교 설명회를 1회, 학생자치기구와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2회 진행하였다.

설명회는 우리 대학이 5월에 교육부에 제출했던 혁신 기획서를 바탕으로 유상권 기획처장의 설명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학생회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 간 규모 차이로 인한 차이와 차별에 대한 우려, 대학 구성원 간 갈등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차별이 생기는 원인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다고 본다. 작년에 강원대와 RIS 사업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학의 많은 요구 사항들을 반영한 바 있기에,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 소통으로 우려 사항들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에 덧붙여 “온라인 수업 운영 등 학과 간 벽을 허문 학사구조 혁신을 통한 화학적 융합, 고충 처리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각 캠퍼스의 특성을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두 번째로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 시 등록금의 변화가 있나요?”는 질문에 “국립대학 특성상 등록금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등록금 인상과 같은 부정적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불어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지원받는 막대한 예산이 수업 환경, 시설, 장학금 지원 등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신규로 개설되는 학과나 학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에 대한 등록금 및 장학금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세 번째로는 “강원대와 통합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는 학사 구조상 공존할 수 없는데, 법학과가 폐지된다면 남은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라는 질문에 “관련 법령 유권해석상 우리 대학과 강원대학교가 통합된다면 법학과는 폐지해야 한다. 다만 법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법학과 존속이 가능하며, 학생이 원한다면 다양한 이수제도(마이크로 디그리 등)을 통해 졸업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답했다.

글로컬대학 사업으로 인해 변화할 인원 개편

글로컬대학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교가 변화해 갈 모습은 혁신 기획서를 바탕으로 틀이 짜여 있다. 기획서 내 중장기 혁신 목표 중 지역 산업과 사회 수요를 고려한 대학 혁신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 중 하나로 입학 정원을 2030년도까지 480명 감축을 목표로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탄력 정원제와 학과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올해는 153명이 감축되었다. 올해 153명을 감축한 것은 2024~2026년도를 포함하여 줄어들 입학 정원을 한 번에 줄인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다.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학교 평가에서 타 대학처럼 매년 줄여가는 것과 다르게 차별성을 두어 한 번에 인원을 줄이며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재정 지원 사업비를 더 확보하려 했던 것도 있다.

학생 인원 감축과 더불어 강원도 출신 학생 비율 증가 또한 중장기 혁신 목표 중 하나로 나와 있다. 이는 글로컬대학 사업의 중점 목표와 연관이 있는데, 바로 지역 소멸 방지와 지역 발전 도모이다. 이것과 강원도 출신 학생 비율의 증가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는 학생들의 졸업 후 정주율을 통해 알 수 있다.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지역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여럿 있으나, 서울 경기권이나 기타 강원도 외에서 강원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강원도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졸업한 뒤 정주율이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해 높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통해 지원될 각종 사업과 지원금으로 체계적인 교육 환경과 지원을 늘려 강원 출신 학생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라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기대와 우려

우리 대학은 미래를 위해 시스템적인 부분과 다양한 건축물들의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 없던 시스템인 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이나 LMS 등의 등장과 스포츠 콤플렉스, 정문 개선 사업 등은 모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변화이다. 유상권 기획처장은 “기숙사에서 넘어오는 길을 시작으로 스포츠 콤플렉스가 만들어졌고, 우체국이 있던 자리에는 카페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한 도서관으로 이어지는 길에 학생 식당 리모델링 또한 이루어질 것이고 도서관 리모델링은 내부와 더불어 외부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내에서 공부, 운동, 식사와 휴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이 길을 통해 편안한 학교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행되는 사업이 학생들의 편리하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에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정작 편의를 느껴야 할 학생들의 반응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작년부터 기획되어 곧 실행될 정문 개선 사업에 대해 취소된 줄 알았다는 학생들이 많다. 또한 글로컬대학 사업 3차 설명회에서 나온 “글로컬대학 사업의 진행이 교육부에서 확정된 뒤로 설명회가 지금까지 없었다가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학생들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강원대학교는 설명회나 간담회를 지금까지 총 8회 정도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발언도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나온 질문이었다. 대학 본부는 “바쁜 일정과 기간에 쫓겨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과 미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이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나 소통이 부족한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더 나은 대학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소통 측면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김건 기자

문학의 길

소망비

국어국문학과 김채원

여름이 내뿜은 뜨거운 숨결
내 곁을 스쳐 가고
톡톡 빗방울로 감싸진다

겨우내 발끝에 닿았던 찰랑거림
거침없이 내 손끝에, 눈가에 닿는다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로

내 눈앞에 기어코 찾아와 마주한
작은 물방울 하나

마음 안에 있는 작은 소망을 마주하라며
영롱한 투명 빛을 내보인다 똑똑

친환경이라고 해서 참아줬더니!

국어국문학과 황보민경



십자말풀이

십자말풀이의 정답은 이번 호 기사에 있습니다. 십자말풀이 정답 사진을 찍어 QR코드로 제출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활협동조합 이용권을 드립니다.

●제출기한: 2023.9.20(수) 18시까지
●추첨 후 당첨 소식은 개인적으로 연락드립니다.

(1)					(2)		
				(2)			
(1)							
							(4)
(3)							
					(4)		

가로열쇠

1. 온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의 자료를 모아 두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
2. 대학-지역·산업간, 국내·외 간의 벽을 허물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대학-지역이 동반 성장, 최종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혁신 전략.
3. 뇌의 신경계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자극, 환경 등으로 뇌의 구조나 기능이 바뀔 수 있음을 의미.
4.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

세로열쇠

1. 외국인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사람.
2. 자신에게 맞는 상급 학교나 미래의 직업을 살피어 찾음.
3. 굳게 믿고 의지함.
4. 학교나 학원 따위에 등록할 때 내는 돈.

응모 QR코드

< 06월호 십자말풀이 정답>

가로 열쇠 정답- 1.기숙사 2.위고이감 3.입학식 4.육회비빔밥
세로 열쇠 정답- 1.자기합리화 2.위생용품 3.음악회 4.천원국밥

